

도내 금융민원, 보험건수 '최다'

금융감독원, 전년 대비 6.4% 증가... 기납입 보험료 환급 요구 등 다수 발생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도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이 6일 발표한 '2016년 전북지역 금융 민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전주지원이 처리한 금융민원은 1,572건으로 전년(1,477건) 대비 6.4%(95건) 증가했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보험 민원이 1,048건(66.7%)으로 가장 많고, 비은행(저축은행, 신용카타사 등) 294건(18.7%), 은행 204건(13.0%), 증권 26건(1.6%)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민원다발 유형은 보험의 경우 기납입 보험료 환급 요구 등 보험모집 관련 민원(421건), 은행,비은행의 경우 신용카타 관련 민원(121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전 권역에 걸쳐 직원의 업무처리태도에 대한 불만 민원(258건)이 다수 발생했다.

권역별 민원 현황을 보면 보험의 민원건수는 1,048건으로 전체 민원 중 66.7%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보험 모집 당시 상품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기납입 보험료 반환 요구 등 보험 모집관련 민원이 25.7%(86건) 증가했으며, 보험금지급 관련 민원은 109건으로 전년(169건) 대비 35.5% 감소했다.

은행과 비은행의 민원건수는 498건으로 전체 민원 중 31.7%를 차지하며, 전년(464건)대비 7.3% 증가했다.

민원건수 중 여신 민원이 31.3%(15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여신취급 민원(신규대출, 만기연장 등)이 44건이나 제기됐다.

신용카타 민원은 121건으로 카타발급 및 한도 조건 강화,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88건)대비 37.5% 증가했으며, 대부업 민원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이관됨에 따라 21건 신규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원은 금융거래시 계약서(약정서, 청약서 등), 약관 교부,설명 확인서 등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자필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계약의 경우 가입 전에 보장성,저축성 보험 여부, 보험기간,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즉각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접수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은 "전북지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발생 건수가 높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민원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며 "민원 및 불완전 판매 다발 회사 선정 후 현장을 방문해 완전판매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영업조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각계 각층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롯데전주점, PARTY 649 이벤트 행사

8~9일 진행... 봄·여름 상품 30%~60% 할인 등

롯데백화점 전주점 6층 매장에서는 그랜드 페스타 SALE기간 중 착한 가격을 만나볼 수 있는 'PARTY 649' 이벤트 행사를 오는 8~9일 이틀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6층에서 사구 싶은 날! 응답하라 복고여행'이란 테마를 가지고 TBI, 난닝구, 썬스데이 아일랜드, NBA 등 총 24개 유명브랜드가 대거 참여하며 다양한 봄/여름 상품들을 30%~6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코디즈컴바인 50%(50명만), 어스앤앰 20%, 크리스크리스티 정장구미시(2set) 40%(5명만), 스위브 신상품 후드티셔츠와 맨투맨을 50% 할인판매 하는 등 다양한 상품행사와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우선 방문고객 대상 1,000명에게 '달고나 막대사탕'을 증정해 달콤한 소망을 돕는다.

또한 5만원 이상 구매시 쥬얼리, 아폴로, 존슨이 등 추억의 간식을, 7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종이뽑기'를 통해 생활용품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가 준비돼 있으며 또 하나의 추억여행으로 지역댄스 동아리 라온팀을 초청, 복고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영매선 김영우Floor장은 "세일참여 브랜드가 많고 특별 기획 상품, 세일 기획상품, 이벤트 시은 등 사전에 준비한 많은 행사로 고객들이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풍성해 많은 매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 9개 유가증권 상장법인 매출액·영업이익 모두 ↑

코스닥시장, 전년대비 매출액 ↓ 영업이익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도내 9개 12월 결산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9곳은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6일 발표한 '전북지역 12월 결산법인 2016년도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유가증권시장 상장 9개사의 총 매출

액은 1조97367억원으로 전년(1조6791억원)대비 3.43% 증가했다.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은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넥솔론의 영향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9개 상장법인 중 매출액이 감소한 회사는 일진머티리얼과 광전자 등 2개사이다.

또 부채비율은 2015년 말 대비 7.67%p 높아진 103.28%를 기록했으며, 전국평균(69.69%)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부채비율이 증가한 회사는 넥솔론, 광전자, 미원에스씨, 한농화성 등 4개사였다. 유가증권 상장 9개사 중 미원에스씨, 대우부품, 한농화성 및 YH에너지화학 등이 흑자가 지속됐고, 일진머티리얼, 광전자, 백광산업 등은 흑자로 전환된 반면 넥솔론과 페이퍼코리아 등 2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 9개사의 총 매출액은 1조2808억원으로 전년(1조2819억원)대비 0.08%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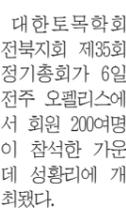
그러나 영업이익은 605억원, 순이익은 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63%, 44.97% 큰폭으로 증가했다.

매출액 감소는 하림을 제외한 전종목에 걸쳐 나타났으며, 신진에스엠(27%), 하림홀딩스(24%), 네패스신소재(19%)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코스닥시장의 부채비율은 2015년말 대비 11.15%p 낮아진 43.54%를 기록했으며, 전국평균(58.41%)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코스닥 상장 9개사 중 동우, 오디텍, 창해에탄올 등 3개사는 흑자가 지속됐으며, 하림이 흑자로 전환됐고, 네패스신소재, 신진에스엠, 하림홀딩스, 코센, 우노엔컴퍼니 등 5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인재용 기자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남궁문 지회장 선출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제35회 정기총회가 6일 전주 오텔리스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17대 고재찬 회장의 후임으로 남궁문(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남궁문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역대 훌륭한 선배 지회장님들의 업적과 전통을 향상시켜 가는데 어깨 무겁고 격정이 앞선다"며 "학술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활동 강화와 학술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현장견학 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지리산낙농농협, '깨끗한 축산농장 울타리 조성사업' 추진

전북지리산 낙농농협은 지난 5일 완주군 봉동읍 샘물목장에서 축산냄새 방지와 환경 친화적 축산에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울타리 조성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사업은 농가 스스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 주변에 축백, 편백 나무 등으로 울타리를 만드는 것으로, 자연 친화적 축산 이미지와 인근 주

민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깨끗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전북농협은 냄새취약시기인 여름철 냄새 근절을 위해 각 농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축산환경개선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며, 상시 냄새측정과 분뇨처리 지원 등,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농가 스스로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국제선 일부 주요노선 증편 키로

이스타항공이 5월 국제선 일부 주요노선 증편을 실시해 고객편의 확대에 나선다.

이스타항공은 일본 도쿄, 오사카 노선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 증편 운항하며, 홍콩 노선의 경우 5월 황금 연휴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일주일간 추가 증편한다.

특히 오사카노선의 경우 5월 1일에서 7일까지 연휴기간동안은 ZE619, ZE6201, ZE620, ZE6202 편이 추가된 특별 증편 스케줄로 운영된다.

이번 증편 운항은 5월 가정의 달과 연휴를 맞이해 인기노선인 일본노선

(도쿄, 오사카)과 홍콩노선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실시되며 고객들의 스케줄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5월 증편운항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6일부터 14일까지의 이벤트 기간 동안 편도총액운임기준 최저 인천-도쿄(나리타) 9만18,100원, 인천-오사카(간사이) 8만18,100원, 인천-홍콩 9만13,100원부터 예매 가능하다.

또한 해당 이벤트 기간 동안 인천-도쿄(나리타) 항공편을 예약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트랜드 여행책 '이지시티도쿄'를 증정한다. /인재용 기자

삼양사계열,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그림 축제

삼양사, 삼양화성, 휴비스는 환경보전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8일 휴비스 전주공장 대운동장에서 '제20회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그림 축제'를 개최한다.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그림 축제'는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환경축제로 1996년 시작돼 매년 학생과 학부모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환경에 대한 주제로 초등학생 그림 그리기와 중학생 글짓기 행사로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김현욱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되며, 본 행사 이외에도

페이스 페인팅, 쪼물락 비누, 에어 바운스, 트램폴린, 로미오, 낙하산 놀이, 미니 바이킹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준비돼 있다.

또한 행사 당일 6가지 체험활동 사진을 본인 SNS에 게시해 인증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간식과 함께 참가자 기념품을 제공한다.

한편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그림 축제'에서는 매년 환경부장관상, 새만금지방환경청장상, 환경보건협회장상, 삼양그룹 회장상을 비롯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326명에게 장학금과 상장 수여해왔다. /인재용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